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보수와 진보 교육의 균형 발전

우량 유실수 묘목을 만들려면 접목을 하는데 뿌리 부분의 대목은 야생종으로 땅으로부터 뿌리 발육을 잘하고 양분 흡수를 잘하는 적응성이 강한 나무며 접수는 우량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접목하는데 사과 묘목의 경우 접목을 두 번 한 묘목을 선택한다.

이는 대목에 접목한 묘목에 다시 접목하는데 첫 번째 접목한 것은 내병성이 강한 형질의 접목이고 마지막 접목의 접수가 우량 과일이 열리는 접목이다.

여기에서 야생의 뿌리인 대목이 보수라면 접수는 진보다. 보수와 진보가 접목되어 우량 사과 나무 묘목이 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접수라도 보수인 대목이 없으면 우량묘목을 만들 수 없다.

교육에서 인간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에서 교육했으며 전통적으로 해온 교육 방법이 수차 개선되어 가장 최적의 방법을 택하며 발전해 왔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교육의 근본은 인간유기체가 지식정보에 흥미를 갖게 하는 동기유발이며 이것을 이용해 전개하여 학습을 통해 지식 정보 기능을 터득하고 평가를 해서 검증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

이처럼 계획-지도-평가는 반

복하면서 교육하는 곳이면 어디 서나 적용되는 기본교육의 틀이다. 그러므로 진보든 보수든 교육의 근본인 방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며 거기에서 개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 교육은 먼저 보수 교육 방법 교육사상을 인식한 기초 위에 새로운 교육이 접목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전국 17개 교육청의 14개 교육청에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교육이 과거의 전통 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며 기본을 모든 교육으로 향하고 있어 우려한다.

교육예산이 교육부 노동복지부 보건복지부로 지급되고 무상복지교육에 힘쓰고 있으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보수교육은 지자체가 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없어 자생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보수교육 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지원하는 행정관서와 교육기관이 없다. 지난 6·13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중에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시민교육 지원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

추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을 한 보수진영 후보는 모두 탈락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어 교육 지자체가 출범했다.

보수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향교는 교육의 근본인 효 교육과 인성 교육의 전통 맥을 이어온 한자 교육을 하려고 힘쓰지만, 시설도 교육예산 지원도 못 받고 수익자 부담으로 담보 상태에서 하며 방학하는 동안 뜻을 둔 학부모의 교육 요청으로 예절 교육과 한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의 근본은 보수인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교육청은 보수진영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 교육지원청 설치는 안 하더라도 시·도청은 평생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지방 교육은 전통 지방문화를 살리고,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뿌리를 살리고, 효 교육에 근본을 둔 인성교육과 예절 교육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예절 인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 교육으로 많은 지도자 인재 양성에 힘써 유능한 지도자가 사회교육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민 정서를 바르게 하는 교육이 되게 해야

한다.

교육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치우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교육예산이 편중된 공교육 복지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수 진영의 교육 기관을 새롭게 혁신하고 보수 혁신 교육이 되게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

공교육은 첨단을 가고 있는데 보수 진영 교육도 담보상태의 전근대적 교육에서 새롭게 혁신하여 보수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시민의 평생교육지원을 시·도 교육청이 아닌 시·도청 산하 평생교육 진흥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시·도청에서 지원하는 복지 국가의 평생교육지원은 교육청의 공교육지원에 비하면 너무나 푸대접받고 있어 시민 평생교육을 전담하고 복지 교육예산을 지원 관리하는 시민교육청을 시·도청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논어에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다. 인간이 진정한 새것을 알려면 옛것을 알고 그 바탕 위에 새것을 알아야 진정한 새것이 됨을 뜻한다.

진보 교육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보수 교육을 알고 그 토대 위에 진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교육을 관장하는 진보 교육청은 보수와 진보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대안을 세우고 추진해야하며 시·도 지자체는 시·도민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社說

남북관계 회복 기회로 삼아야

북한이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재입북하는 바람에 북한내 지역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지난 6개월간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했는데, 엉뚱한 데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북한은 이 탈북민에 대한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 검사를 통해 일단 감염 의심자로 분류하고, 그의 귀향 경로인 개성시를 완전봉쇄했다.

우리 당국은 월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3년 전 탈북해서 남으로 온 김포 거주 24세 남성으로 압축했다. 북한의 발표 직후에는 '확인중'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했다.

결국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진 월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남성은 최근 성변조에 연루됐으

며, 이를 피하기 위해 해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허술한 경제대체와 감염 책임론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절경지 군 경제대체는 우리의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내고, 이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감염 책임론은 문제가 복잡하다. 만일 재입북자가 코로나19 감염자일 경우 남한 책임론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최종 확진된다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섣달의달 개성시의 상황이 좋지 않고 추가 확산 우려가 있다면 우리가 진단키트와 의료진을 파견해 방역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연결고리로 남북 간 소통 재개를 꾀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면 더욱 좋다. 마침 새로 취임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의욕을 보이는 만큼 첫 과제로 코로나19 남북 민간·광역 협력을 제안해 봄 직하다.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직통 (062) 228-2580  
기사제보 (062) 222-258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분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도로 위 '포트홀' 시민안전 위협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를 비롯해 좁은 골목길에 있는 포트홀은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꼼꼼한 보수·보강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포트홀에 물이 가득 고여 있다 보니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포트홀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기 일쑤다.

자연스레 차량들이 포트홀을 지나칠 때마다 '쿵', '달경 달경' 소리와 함께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

물론 낮에는 포트홀을 확인하고 피해갈 수 있지만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달리던 속도 그대로

포트홀이 발생한 곳을 지날 때마다 차체에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우려된다.

이처럼 포트홀을 상당 시간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군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포트홀에 고여 있던 빗물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주변으로 튀면서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현재의 포트홀 보수는 대체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땀질식 포장하는 임시방편을 위주로 이뤄져 아스팔트 노후화 등 해마다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관계기관에서는 민원접수와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